

‘삼국유사’ 같은 귀중한 가치 지닌 책

김재일 사찰생태연구 대표, 7년 조사 3년 편집 끝에 ‘108사찰 생태기행-산사의 숲’ 10권 완간



요즘 매서운 추위가 사람들의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게 한다. 추운겨울이 언제까지 이어지나 전전공공이었지만, 이제 곧 입춘(立春)이다. 계절이 또다시 옷을 갈아입는다. 사찰생태연구 대표 김재일 대표(63) 역시 “나도 이제 옷을 갈아입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일 대표는 현재 폐암말기이다. 8년째 암 투병생활을 해 온 김 대표는 “작년 11월 담당의사로부터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다는 통보를 받고 치료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을 “단지 육신이 옷을 갈아입는 것 뿐”이라 담담히 말했다. 그런 김재일 대표가 최근 2002~2008년 전국 108개 사찰을 생태 모니터링한 기록물 <108사찰 생태기행-산사의 숲>시리즈를 완간했다. 책에는 7년에 걸친 조사와 편집에만 3년이 걸린 원고지 7500매, 5000매 이상의 사진자료가 실려 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두 달 남았네요”라고 말하는 김재일 대표(사진)의 모습은 어느 건강한 중년남성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제 기분엔 한 1년은

훼손되면서 부터다. “무작정 시위현장으로 뛰어들어 단순대응을 하는 것 보다, 사찰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히 “경북 봉화의 어느 사찰 앞 마당에는 천연기념물인 두점박이 올빼미가 스님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걸 보고 깜짝놀랐다”고 밝혔다. 반면 사찰 자체가 생태를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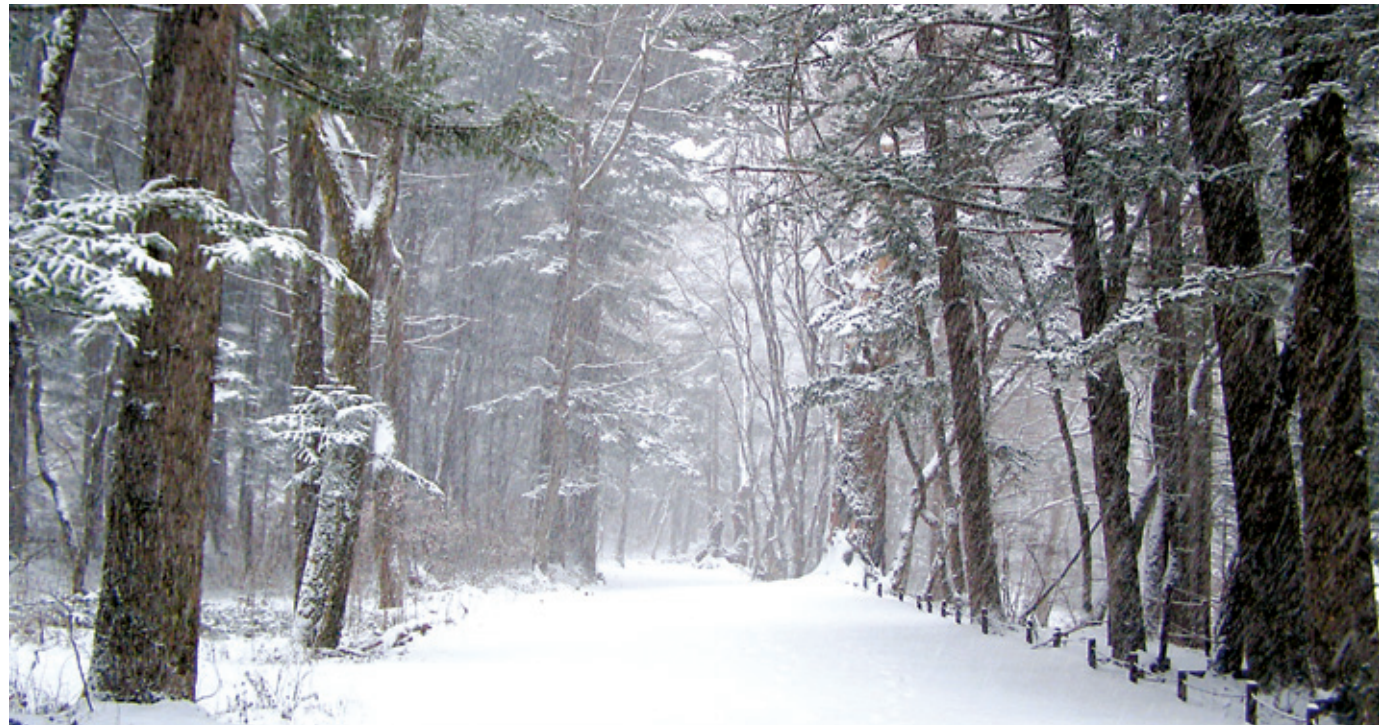
잡게 된 지 6개월 만에 우연히 안정 질환사에서 만난 한 스님의 회담을 받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

“출가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부처님이 숲의 성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일생을 숲과 함께 지내신 분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스님들처럼 강원이나 선원에 들어가 공부를 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출가한 지 5년 후, 그는 다시 세속으로 돌아왔지만 “다음 생에도 꼭 스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일 대표가 그토록 사랑한 생태는 그에게 마냥 기쁨만을 안겨주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가 폐암에 걸린 이유도 새만금사업 시위운동을 나갔다가 감기에 걸린 것을 방치해 폐암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태에 대한 그의 사랑은 여전히 식을 줄 몰랐다.

“현대에 이 책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책이 불교계 수행환경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점입니다. 일연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도 처음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모은 단순한 이야기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생태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책은 분명 100~200년 후에는 이 땅의 생명변화를 관찰하고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김재일 지음 | 지성사 펴냄 | 17만원
이은정 기자 soe84@buddhapia.com



김재일 대표는 “생각외로 사찰 생태가 잘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눈 내리는 월정사의 모습.

(사진 제공=지성사)

더 살 것 같아요. 요즘 치유의 숲이란 말도 많이 하는데, 저야말로 산과 숲으로만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덕을 조금 보지 않겠습니까.”

김재일 대표의 이런 말은 현생에 대한 미련이 보인다. 숲이 그만큼 그에겐 특별한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스님, 국어교사, 작가, 시민운동가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김 대표의 삶에는 ‘숲’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사찰생태조사는 사실 개인이 진행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조사량이 너무 방대했죠. 1929년 조선총독부가 한국의 산림을 수탈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을 조사한 이래로, 이런 대규모 조사는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김재일 대표가 처음 사찰생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0년 후~2000년 대 초, 사찰 환경이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무분별하게

훼손되면서 부터다. “무작정 시위현장으로 뛰어들어 단순대응을 하는 것 보다, 사찰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사찰환경이 파손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했죠. 그 후부터 주요 사찰들을 중심으로 그 곳의 생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일 대표는 자료조사에 앞서 자신과 두 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는 운전을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사찰의 도움을 절대 받지 않는 것이었다.

“생태를 살리고자 조사를 시작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기록은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당 사찰의 신세는 지지 않았습니.” 김 대표는 108개 사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일일이 걸어 다니며 사찰의 생태를 모니터링 했다. 단순히 숲의 식물만이 아닌, 동물, 조류, 곤충, 토질, 토양 등을 두루 조사했다. 김 대표는 “생각 외로 사찰 생태가 잘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며 특

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김 대표는 “경전에 나오는 조경과 식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며 “우리 전통의 식생이 아닌 외래종과 많이 교란되거나, 파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일 대표는 얼마 전 조계종 측에 ‘불교수목원 설립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내가 원하는 불교수목원은 휴양, 교육,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멀티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을 통해 각 사찰에 맞는 식생을 공급하고, 하나의 ‘불교성지’를 만드는 것이 저의 원(願)이었습니다.”

김재일 대표가 이렇게 까지 숲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와의 인연도 한 몫 한다. 그는 “내가 불자가 아니었다면 절대 생태운동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단호히 말했다. 김재일 대표는 교편을

이은정 기자의 뽀뽀한 레시피①
(Fun Fun)

현미밥 양배추 말이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온다. 며칠간 계속된 야근 덕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몸이 먼저 침대로 곤두박질 쳐버린다. 몸은 젖은 솜처럼 축축 늘어지지만 하는데, 이놈의 배가 눈치 없이 아우성이다. 밥솥을 열어보니 언제 한 지 기억조차 없는 밥들이 누렇게 들러붙어 있다. 금방이라도 구더기가 친구하자며 나올 것 같은 음산한 기분이 든다. 빈속에 그 광경을 보니 괜히 헛구역질만 난다. 안보면 좋았을 것을... 설거지할 생각에 눈앞만 감감해진다.

익숙하게 싱크대를 열어 사다놓은 레토르트 식품들이 없나 재빠르게 훑는다. 다행히 저장밥 하나가 남아있다. 저장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려는데... 가만 생

각해보니 어제도 짜장밥을 먹었던 것 같으로 들어온다. 며칠간 계속된 야근 덕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몸이 먼저 침대로 곤두박질 쳐버린다. 몸은 젖은 솜처럼 축축 늘어지지만 하는데, 이놈의 배가 눈치 없이 아우성이다. 밥솥을 열어보니 언제 한 지 기억조차 없는 밥들이 누렇게 들러붙어 있다. 금방이라도 구더기가 친구하자며 나올 것 같은 음산한 기분이 든다. 빈속에 그 광경을 보니 괜히 헛구역질만 난다. 안보면 좋았을 것을... 설거지할 생각에 눈앞만 감감해진다.

그러고 보니 아직 젊다는 이유로 건강을 챙기는 일은 늘 뒷전이였다. “나는 아직 젊어서 괜찮아!” 라고 넘겨버렸는데, 이제 해도 바뀌어 점점 젊음도 잃어간다. 이리다 시집도 못가보고 폭삭 늙어버릴 것 같아 불안하다. 건강에 이상경보가 오기 전, 미리미리 내 건강을 챙겨야겠는데, 몸도 지치고 맛도 좋은 그런 음식 어디 없을까?



사진=박재완 기자

#알고가기 양배추의 유향과 염소 성분은 위장 점막을 더욱 강화시켜 줘 위궤양 예방에 좋다. 또 혈액을 맑게 해 혈액순환을 향상시켜 피부에도 좋다. 현미는 우리 몸의 과다영양소를 배설시켜 번비를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고혈압,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쌀 1컵, 현미 4분의 1컵, 양배추 400g, 적배추 400g, 표고버섯 3개, 당근 50g, 세발나무 30g, 된장 4큰술, 들기름 4큰술, 참기름 2큰술, 설탕 작은1큰술, 소금 작은1큰술, 호두, 해바라기씨, 청랑고추 1개

음식 만들기

- ① 쌀과 현미는 적당히 불린 후, 밥을 한다.
- ② 양배추와 적배추는 깨끗이 씻어, 찜통에 물이 끓으면 각각 3분 씩 찜낸다.
- ③ 표고버섯, 당근은 채 썰어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넣어 볶는다.
- ④ 세발나무는 살짝 데친 후, ③과 같이 팬에 볶는다.
- ⑤ 된장에 설탕과 호두, 해바라기씨, 청랑고추 등을 썰어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 ⑥ 찜낸 양배추위에 ①을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버무린 뒤 얇게 편 후, 말아준다. 그 위에 된장양념을 얹어 놓는다.
- ⑦ 적배추에는 볶아 놓은 표고버섯, 당근, 세발나무를 함께 넣어 ⑥처럼 말아준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미술

민속죽염 22년 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 |
|--|---------|
| 가 루 죽염 125g | 27,500원 |
| 가 루 죽염 230g | 50,000원 |
| 알갱이 죽염 125g | 30,000원 |
| 알갱이 죽염 230g | 55,000원 |
| 2번 구운 | |
| 보급형 민속죽염 500g | 10,000원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성지순례!!

1월 ~ 2월 마감이 끝났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조기예약 기념 특전
5월 12일, 16일 (단 2회 출발)
3월 15일 마감
미안마 성지순례 1,490,000원
양곤, 바간, 만달레이, 혜호 6일

■ 3월 15일 출발
지장도량, 관음도량 성지순례 1,290,000원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6일

■ 3월 14일, 4월 5일 출발
미안마성지순례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이티오 7일

미안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안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베트]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佛正錄
Phoena Legacy of the Buddhist and Zenmaster
불조정맥

话头
Hwa-du
화두

중,영,한 3개국어판!
< 불조정맥 >

중,영,한 3개국어판!
< 화두/Hwa-du >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 진영과 정맥전법계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출간.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